

한경훈 / 4월 / 기출GS / 3회									응시인원
수강번호	문제 1	문제 2	문제 3	문제 4	문항 총점	석차	상위%	가독성 평점	
517494	14.5	11.5	17	13.5	56.5	1	11.11%	5	
517297	17.5	11	15.5	10	54	2	22.22%	6	
517735	15	11.5	15	11	52.5	3	33.33%	5	
519433	19.5	12	17.5	1	50	4	44.44%	5	
519169	15.5	10	14	10	49.5	5	55.56%	5	
517304	15	9	13.5	11.5	49	6	66.67%	5	
515018	13.5	11	11.5	6.5	42.5	7	77.78%	5	
519409	12.5	9.5	11	9	42	8	88.89%	5	
517214	14.5	10	12.5	3.5	40.5	9	100.00%	5	

한경훈/4월/기출GS/3회/1번	채점자
	이흥기
<p>1. 문제 1</p> <p>(1) 설문 1</p> <p>상표 사용의 개념 및 상표적 사용 판단 기준을 서술해야 하는 단문 문제였습니다.</p> <p>이런 단문 문제는 목차를 “1. 상표 사용의 개념 2. 상표로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기준” 으로 잡고 그 아래 서술을 하는 것이 적절하고 편리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p> <p>적절한 내용과 양을 채우면 점수를 쉽게 받아갈 수 있으므로 평소에 암기를 잘 하고 시험장에서 당황하지 않는다면 어떤 단문 문제가 나와도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p> <p>(2) 설문 2</p> <p>설문 1에서 상표사용에 관한 판례들을 많이 서술했기에 설문 2에서는 ‘순수한 디자인적 사용’ 과 ‘디자인임과 동시에 상표적 사용’ 에 대한 판례만 서술한 뒤 사안포섭에 노력을 기울여야합니다. 그럼에도 순수한 디자인적 사용에 대한 사안포섭이 부족한 경우가 많았습니다.</p> <p>‘외관 관념이 상이하다’ 는 지문의 문구와 판례 키워드를 포함하여 사안포섭에 노력을 기울이기를 추천드립니다.</p> <p>(3) 설문 3</p> <p>설문 2와 비슷하게 사안포섭에 노력을 기울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p> <p>또한, ‘상표로서 사용했는지’ 와 ‘침해죄 성립여부’ 를 서술하는 문제임에도 침해죄 성립 여부를 줄처리한 답안이 종종 있었습니다. 침해죄는 침해행위와 고의를 요건으로 하고 상표로서 사용만으로는 배점이 부족하기에 고의를 포섭해 주셨어야 합니다.</p>	

2. 총평

개념 자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공부한 내용이지만 주어진 지문 내용과 판례 키워드를 바탕으로 사안 포섭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 및 다른 상표적 사용에 대한 판례들을 통해 상표 사용에 관한 문제의 사안 포섭을 연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경훈/4월/기출GS/3회/2번	채점자
	이흥기
<p>1. 문제 2</p> <p>(1) 설문 1</p> <p>문제 1의 설문 1과 같은 단문 문제입니다. 분리관찰을 논하는 문제였기에 이 문제를 통해 분리관찰에 대한 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p> <p>(2) 설문 2</p> <p>‘분리관찰 할 수 있는지’와 ‘나뭇잎 띠 문양에 대한 유사판단’ 두 가지를 논하는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분리관찰이 가능한지 또는 유사판단 둘 중 하나만 길게 포섭하고 하나는 짧게 줄처리 하는 답안이 꽤 있었습니다.</p> <p>두 논점 다 포섭할 내용이 적지 않고 배점도 충분히 주어져 있기에 두 논점 다 적절히 포섭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p> <p>2. 총평</p> <p>3회 문제 2번까지 채점하면서 느낀 것은 두 가지를 논점에 관한 문제에서 하나의 논점을 길게 포섭한 뒤 다른 논점은 짧게 쓰거나 줄처리하는 답안이 생각 이상으로 많았습니다.</p> <p>어떤 문제는 한 논점을 짧게 포섭해야 하는 경우가 있지만 (예를들어, ~~에 대해 논하고, 심판의 결과를 논하시오.) 많은 경우에 두 가지 논점을 지문이 제시해준다면 둘 다 적절히 포섭하는 것이 득점에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p>	

<p>한경훈/4월/기출GS/3회/3번</p>	<p>채점자</p>
	<p>이흥기</p>
<p>1. 문제 3</p> <p>(1) 설문 1</p> <p>입체상표 문제임에도 ‘도형상표’ 라는 용어를 사용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용어를 확실하게 써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p> <p>(2) 설문 2</p> <p>입체상표이므로 식별력 및 기능성을 먼저 살펴본 뒤 B회사의 대응조치에 대해 서술하는 문제였습니다.</p> <p>사용에 의한 식별력도 취득했고 기능성도 없기에 항변할 사항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배점을 채우기 위해 불가능한 조치들(예를 들어, 효력제한사유)도 함께 써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p> <p>(3) 설문 3</p> <p>甲이 등록상표를 사용했기에 신용 귀속 주체가 A회사임을 놓친 답안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놓치기 쉬운 논점은 답안 시작할 때 선결논점으로 서술한 뒤 넘어가는 방법도 있으니 실수 방지를 위한 자신만의 방법을 만들기를 추천드립니다.</p> <p>또한, 이렇게 서술할 것들에 비해 배점이 작은 경우 조문 및 사안포섭만을 하여 최대한 다양한 논점을 포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절이유에 대해 의의 취지를 쓰면서 답안지 균형을 깨는 것이 시간 조절에 불리할 수 있으니 필속이 빠르지 않다면 사안포섭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p> <p>A회사의 조치를 서술할 때 甲의 등록에 관한 조치만 쓴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이런 유형의 조치문제는 등록에 관한 조치와 사용에 관한 조치를 세트로 생각하는 것이 실수를 방지하는 방법입니다.</p>	

2. 총평

특유표장이 한동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① 기본기를 묻는 문제 ② 이전에 기출된 판례를 활용한 문제 등 특유표장문제가 충분히 나올 수 있기에 특유표장에 대한 대비를 소홀히 하지 않기를 추천드립니다.

특유표장의 경우 어느 정도 공부해야 할지에 대한 이정표가 되는 것이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풀어보면서 어느 정도로 특유표장을 공부해야할지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한경훈/4월/기출GS/3회/4번	채점자
	이흥기
<p>1. 문제 4</p> <p>(1) 설문 1</p> <p>A와 B를 헛갈려한 답안이 몇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답안이 완전 달라지므로 득점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p> <p>다수의 사람이 나온다면 체크, 표 그리기 등 자신만의 방법을 활용해서 당사자를 헛갈리지 않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p> <p>(2) 설문 2</p> <p>E에게 통상사용권을 설정해주는 경우 A와 B의 동의를 받아야하고, F에게 통상사용권을 이전하는 경우 A, B 및 D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다양하게 case 분류를 해야 하는 문제였습니다.</p> <p>이런 문제들이 4번 마지막 문제에 배치되는 경우 체감 난이도가 상당히 높을 수 있습니다. 절대 급해지지 마시고 천천히 case분류를 하면서 논리적으로 서술해가는 것이 양을 많이 쓰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p> <p>양을 조금 줄이더라도 목차 구성할 때 case분류를 잘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p> <p>2. 총평</p> <p>3회가 끝났습니다. 시간은 흘러가고 시험은 다가오는 것이 초조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급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p> <p>당장 5,6회 7,8회 성적이 안 나와도 좋습니다. 내 약점이 어디인지, 나에게 가장 필요한 공부가 무엇인지 스스로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야 시험에 합격할 수 있을지를 꾸준히 고민하시기 바랍니다.</p> <p>일교차가 큼니다. 다들 몸 관리 잘하시고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p>	

2. 상재 사용 권한을 부여.

(부제는, 상재의 권리, 상재 사용 권한, 상재
구입 권한, 상재 사용 권리 등을 포함하여
권리자 또는 권리자에게 부여한다.)

3. 권리

상재 사용이 있어, 권리자는 상재 권리
자격을 부여하는 데, 권리자로 기능하는 상재를
보존한다.

II. 상재(2) **3.5**

1. 권리.

(1) 권리자, (2) 권리자, (3) 권리자
(4) 권리자, (5) 권리자, (6) 권리자

2. 권리.

본래 "권리"라는 개념이 상재 권리자
상재 사용 권한으로 상재 권리자

3. 상재 사용 권한 부여 (소유)

(1) 상재 사용 권한 부여

(부제는 상재 사용 권한 부여
권리, 상재 사용 권한 부여
상재 사용 권한 부여

시용가능한 볼 수 있어, 마찬가지로 상사-6이라
되는 이점이다.

2. A항에 대해 설명 가능 (5점)

(1) 제 1항 - 1항

상사-6 제 1항, 제 2항을 인용할 수 있다.

(2) 제 2항

i) 제 1항을 인용, ii) 제 2항을 인용할 수 있다.

(3) 제 3항 관련

1) 제 3항 제 1항

제 3항 제 1항은 이항 제 1항 포함, 다항 제 1항
제 1항 인용, 이를 문헌에는 상사-6 인용할 수 있다.

2) 제 3항 제 2항

(제 3항 제 2항은 제 1항의 상사-6 인용할 수 있다.
제 3항 제 2항을 인용할 수 있다.

(4) 결론

(① 상사-6 A항에 제 1항 인용가능한 판례가
없다. ② 제 2항은 별문, A항 상사-6 제 1항
이므로 제 3항 상사-6 제 1항이 아닌, ③ 상사-6
제 2항도 인용 불가능한 것이다.

[끝]

[8 - 27.]

I. 經 (1) 5

1. 경향성의 개념

경향상으로는, 2차에서 3차, 3차에서 4차, 4차에서 5차, 또는
기초 등로 계층의 폭장을 대한다.

2. 결함도 유사 판정근.

(c) 孳生 針刺

[illegible]

(2) 전지온도 및 수위

4/4는 3/8로 2배, 전지 2배 늘어난다.

(3) 오복이탈 (탈기)

1) 필름 5/4

취미는 삼겹살 등 그 밖의 요리와 함께
가능한 것, 즉 요리하는 것 같은 것
같은 것, 또는 취미와 같은 것.

2) 矩阵 与 行列

화/세는 국/경도, 인/수 공, 미/중 중의 차이로,
 이는 국/경도 상에서 국/경도, 국/경도, 국/경도
 중의 국/경도 국/경도 국/경도.

3) 결론

① Xe 와 Be 나뉘는 데서 Xe 가 Be 보다 더 큰 원자 반경을 가진다. ② Be 는 Xe 보다 더 높은 이온화 에너지를 가진다. ③ Be 는 Xe 보다 더 높은 전기 음성도를 가진다. ④ Be 는 Xe 보다 더 높은 전자 친화도를 가진다. ⑤ Be 는 Xe 보다 더 높은 원자 질량을 가진다.

3. 한글의 발달.

① $\frac{1}{2}$ 은 $\frac{1}{2}$ 을 $\frac{1}{2}$ 로 나누고, ② $\frac{1}{2}$ 을 $\frac{1}{2}$ 로 나누고
이제 $\frac{1}{2}$ 을 $\frac{1}{2}$ 로 나누고.

Page 2.

[문 - 31]

I. 질문 (1) 5

1. 침해상표 여부 (각각).

① 침해상표, 제1인 침해권 등을 주장한 권리자가,

② A, B 등 제2인 침해권 등을 주장한 권리자가, 침해상표이다.

2. 양 상표의 유사 여부 (각각).

(1) 유사상표 여부 (각각).

상표는 다른 상표와 유사한 경우, 권리, 이익, 이익 등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와 유사한 경우, 이익 등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로 판단된다.

(2) 유사상표의 정도 (각각).

상표는 유사상표의 정도에 따라 다른 권리, 이익, 이익 등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와 유사한 경우, 이익 등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로 판단된다.

(3) 진위(부정) 관련 주장 여부 (각각).

상표는 진위(부정) 관련 주장 여부, 권리, 이익, 이익 등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와 유사한 경우, 이익 등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로 판단된다.

(4) 결론

①. 양 상표의 정도 모두 마한 모방의 정도를 각각

각 모체가 동시에 마모되어 있는 등 미량에 주는
지배적 양성이 나타나고 볼 수 있다. (2) B 회사
또한 육각형 양성에 가깝고, 또한 또한 "B 회사
50% 지분" 등 문자, 양성이 있는 등 제가 있다.
(3) 이를 전무양성도 지분으로 리, 양이를 포함한
수익 양성이 양성이, 양이는 양성이 수 있어 양성이
양성이, 양성이 양성이, (4) 양성이 양성이.

3. 양성이 양성이

양성이, 양성이 양성이 양성이.

II. 양성이 (1) 4.5

1. B 회사 양성이 양성이 양성이

(1) 양성이 양성이 양성이 양성이

양성이 양성이 양성이 양성이 양성이 양성이 양성이 양성이
양성이 양성이 양성이 양성이 양성이 양성이 양성이 양성이
양성이 양성이 양성이 양성이 양성이 양성이 양성이 양성이
양성이 양성이 양성이 양성이 양성이 양성이 양성이 양성이

(2) 양성이 양성이 양성이 양성이

1) 양성이 양성이

양성이 양성이 양성이 양성이 양성이 양성이 양성이 양성이
양성이 양성이 양성이 양성이 양성이 양성이 양성이 양성이

(3) 평가 32 |

- ① 4차에 2차 임의의 수를 곱하여 얻은 결과가 10
(32 230), ② 4차로 얻은 결과 등 무한히 계속된다.
(32 236).

(4) 기타 32 |

경고, 특허권(특허법 제 121) 등 가해된 것이다.
[종교]

[80 - 41]

I. 93 (1). 41. A, B에 관계 - 공유관계.

① A, B는 X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② X에 대한 공유관계가 있다.

2. C 동양사영사관계 여부 (소극).

(1) 조 93 (3)

공동소유관계가 성립, B가 X를 분할 처분할 권리는 인정됨이 없다.

(2) 조 93.

① A가 인정됨, B에 대해 X를 분할 처분할 권리가 없다.

② 조 93 (3)에 의해, C는 동양사영사관계 볼 수 없다.3. C에 합유관계(1) B에 대해 관계에서 파생 - 침해

① C는 동양사영사관계가 아닌, ② B에 대해 관계에서 파생하여 X를 지각함에 있어 침해라고, ③ B에 대해 동양사영사관계가 인정됨을 받은 자에 있다.

(2) A에 대해 관계에서 파생 - 계약상 책임

① C는 A에 대해 동양사영사관계가 인정됨을 주장하여, ② 민법 제 390 조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것이다.

※ 추가작성의 경우 []에 "계속"이라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II. 문제 (2). 9.5 제 100조항 이하로 쓰는 것은 추천드립니다.

1. D가 특정성격의 의무 (주3).

(1) 등락이 발생 하기 - 것 100 ① 1

특정성격의 등락, 제 제100조에 대해 가해

(2) 소결

① 제100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고, ② 등락이 발생하면 벌금 10, ③ D는 A, B로만 상한 선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2. E가 특정성격의 의무 및 방조.

(1) 관련 규정 - 것 95 ⑥

제100조항 이하로 쓰는 것은 추천드립니다.

(2) A, B 등락 경우.

1) E 지위

것 95 ⑥에 따라 E는 등락이다.

2) 방조

① A, B에 대해 상한 규정 가해하고, ② D에 대해 상한을 초과하지 않는다.

(3) A, B 미등락 경우.

1) E 지위

것 95 ⑥에 따라 E는 등락이다.

2) 방조

① A, B에 대해 상한 X 권리에 따른 권리

볼 수 있고, ② E는 D에 대해 제1차원 평면을
볼 수 있다. (원형 3903)

3. F가 동등성관계인 경우 및 방법론

(1) 일반 경우 - 1973

특정 사람 같은 것, 성격 및 관습과 등이 있는
사람이 아닌 것이다.

(2) E가 동등성관계 아닌 경우.

결국 F에 대한 이해도는 무조건.

(3) E가 동등성관계인 경우.

1) A, B, D가 동등한 경우.

① F는 동등성관계 자리에 있을 수 있으며, ② 전통
성격과 D에 대해 서로 공통관계 있다.

2) A, B, D가 미동등한 경우.

① 1973(3)에 따라 이런 하, F는 동등성관계
자리에 있을 수 없다. ② Fe이 성가 있는 경우
A, B, D에 대한 관습이며, 같이 비교 볼 수 있고,
③ F는 이 경우 E에 대해 제1차원 평면 볼 수 있다.

3) A, B에 동등성관계 가보

① 위에서 동등성관계 인정되어 있는 경우도,
이로써 양 관계에 따라 성격이 제1차원 볼 수 있지,
제 3차 무관성관계에 대한 제1차원 관계는 모든
매개 관계. ② 그러나 위 2)의 경우 Fe이 사용시

A, B는 정사각형의 대각선을 이루는 선분, 그리고
 각각의 선분을 이루는 선분.

수정하셨습니다

-이 하 어 마-

[문제 1]

I. 선택 (1) 5

1. 상표 사용의 개념

(1) 상표의 사용 - 형식적 사용

상표의 형식적인 사용이란, 표시·유통·광고행위(法 제 221항 1호 각목) 및 法 제 222항 2호의 행위를 말한다.

(2) 상표로서의 사용

상표로서의 사용이란, 형식적으로는 法 제 221항 1호 각목 또는 法 제 222항 2호의 제정하고 실질적으로는 상표의 기능이 발휘되고 있는 사용 형태를 말한다.

① 표시행위란,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이고, ② 유통행위란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인도 하거나 전기통신매체를 통해 제공하는 행위 또는 이를 목적으로 전시·수출·수입 하는 행위를 말한다. ③ 광고행위란, 상품에 관한 과래서적, 정가표 등에 상표를 표시하고 널리 알리는 행위이다.

2. 상표로서 사용 판단기준

(1) 4대 시제

상표로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상표관청이 판지. 상표의 사용 태양, 등록상표의 주지·지명 정도, 사용자 이 상표 사용한 의도와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야 한다.



(2) 검토

① 상품으로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는 상품의 기능이 발휘 되어야 하는지 판단하여야 함으로, ③ 또한 상품법은 상품의 기능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이 타당하다.

II. 설문(2) ⑥

1. 디자인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1) 순전히 디자인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제1항

상품이 본래 목적인 출제표시기능을 하기 위하여 사용된 것이 아니라 순전히 디자인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와 같이 상품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에는 상품으로서 사용이라고 할 수 없다.

(2) 사안

① 상품이 사용된 상품은 '인형' 인데, 인형에서는 인형의 디자인이 출처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기 보다 단순히 디자인적으로만 사용되는 거래실정이 있는 점 / ② '인형'에 한강이 디자인이 사용된 문갑이 출제표시기능을 하기보다는 한강이에 관한 디자인으로 볼 수 있으며 ③ 한강이 디자인은 '인형'에 대하여 자주 사용되는 형태로서 식별력이 있다고 할 수 있는 점. ④ B회사의 인형에도 식별력이

'외관·관념 상이' 사안특성에 대하여 독해

있는 별도의 표상인 'KITTY'라는 문자 부호를 기재되어 있는 것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B회사의 인형에도 A회사의 상표를 단순히 디자인적으로만 사용했을 뿐, 상표로서 사용이라 할 수 없다.

2. 출제표시와 디자인 기능 함께 수행하는 경우

(1) 디자인인인 동시에 상표로서 사용인 경우 제1제

디자인과 상표는 배타적·선택적 관계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디자인인 인형과 형상 등이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되는 등 출제표시기능을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상표로서 사용으로 보아야 한다.

(2) 사안

① B회사의 인형에 A회사의 캐릭터가 유사한 형상으로 되어 있고, ② A회사의 캐릭터는 국내에 지명한 상품 표지인 것 ③ 지명한 상품 표지인 것을 볼 때 B회사는 A회사의 상표나 출제를 혼동하게 할 의도로 출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KITTY' 부호이 표시되어 있어 출제 혼동이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출제표시를 위하여 사용된 것인 바, 상표로서의 사용이다.

Ⅱ. 질문(3) 6.5

1. A회사가 상표로서 사용 여부

(1) 형식적인 상표의 사용 여부

A회사의 상표에 C회사의 '여장남' 상표를 표시한
화 바. 형식적 사용은 인정된다. (상. 제 2조항 1호, 가목 다목)

(2) 상표로서 사용 여부

1) 안내·설명을 위한 사용 여부

상표가 상표의 내용 등을 안내·설명하기 위하여 사용
되는 등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표의
기능이 발휘되는 상품로서의 사용이라고 할 수 없다.

2) 사안

① A회사의 상표 사용 태양을 볼 때, 캐릭터가 부착된 상품
아래 C회사의 '여장남'을 표시한 것이고, 'HALLO KI
TTY'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고, ② '여장남' 상표는
2023년 경까지 주지의 상품은 아니었으나 반대로 A
회사의 'HALLO KITTY'는 이미 국내에서 잘 알려진
상품 표시인 점, ③ C회사는 조선시대 여자 인형을
모티브로 여장남을 주인공으로 하는 같은 제목의 드라마를
제작·방영하여 큰 반응을 얻은 점, ④ A회사가
운영하는 홈페이지는 2월 간 조선시대 인형의
복장을 하고 상품을 표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캐릭터 상품인 '현대판자기 조. 동생'

등을 안내·설명하기 위하여 사용된 것이고, 상품로서 사용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 침해권 여부

(1) 의의·취지·기법 제230조

주요한 상품권을 고의로 침해한 자는 1억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상품권 반환강박을 위한 규정이다.

(2) 판례

① 상품권 침해. ② 고의가 인정된다.

(3) 침해 여부

① A회사가 사용한 상품은 '여장남'으로 C회사 상품과 동일하고. ② '현대전자기중, 무선전 등'은 C회사 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이나, ③ 상품로서 사용되지 않은 바, 상품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

(4) 판결

① 상품권 침해가 아니고 ② 상품권 침해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특허법)가 있던 것으로 아니어서 고의 인정되지 않아 ③ 침해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문제 2]

I. 실문 (1) ㉠1. 결합 상표의 개념

2개 이상은 가호, 문자, 도형 등이 결합한 상표를 말한다.

2. 결합 상표 유사 판단 기준(1) 유사 판단 일반 원칙 제19조

양 상표가 유사한지 여부는 대비되는 상표의 의미·관념·관능을 전체적, 각체적, 이적적으로 관찰하여 동일·유사 상표에 사용되는 경우 일반 수요자의 정당한 인식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출처 인 혼동이 우려가 있는지 여부로 판단한다.

(2) 전체 관찰 원칙 제19조

상표의 기능은 상표의 구성 전체가 알체로서 발휘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유사 판단 시에도 상표의 구성 전체를 기준으로 의미·관념·관능을 비교 및 검토함이 원칙이다.

(3) 요부관찰의 개념 및 판례

상표 유사판단은 전체 관찰이 원칙이나 상표의 구성 중 인상을 심어주거나 수인지에게 기억·연상을 하게 함으로서 주권하여 출처 표시기능을 하는 부분, 즉 요부가 있는 경우에는 적절히 전체 관찰의 결과를 유도하기 위하여 요부를 가지고 유사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4) 검토

상품의 기능은 전체로서 백외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구성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리. 요부가 있는 경우 적절한 전체 관찰 결과를 얻기 위하여 요부도 유사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II. 실문(2) ⑦

1. 도형 간 결합상표 ^{에서 한 구성} 분리관찰 ^부으로 유사판단 가능

(1) 도형 간 결합상표 분리관찰 가능 여부

2개 이상의 도형이 결합한 결합상표에서 구성 요소 하나가 본질적으로 결합되어 있다지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닌 한 구성 일부를 분리하여 그 부분만으로 분리관찰하는 것이 가능하다.

(2) 분리관찰 방법

상품의 구성 부분 중에서 독립하여 출처 표시 기능을 수행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 그 부분만을 분리·추출하여 그 부분만으로 유사판단할 수 있다.

(3) 검토

① 도형 간 결합상표에서도 의미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나 분리관찰이 허용되어 한 구성 부분의 형태가 가지는 의미·기능·인상으로 상품 유사 판단할 수 있으며 타당하다.



출처표시기능을 하는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이용한다.

2. 유사 판단

(1) 도형상표 유사 판단 기준 제19조

도형상표는 일반이 주는 지배적 인상이 동일·유사하여 수요자에게 출처의 오인·혼동 염려가 있다면 유사 상표라 한 것이다.

(2) B회사 표장 중 독립하여 출처표시 수행했을 - 나뭇잎 씨 모양

① B회사는 나뭇잎 씨 모양을 A회사의 제품과 동일한 크기나 위치로 표현하고 있었음. ② 단순히 디자인적으로서 사용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상품과 구별하는 식별표지로서 사용되고 있다. ③ 따라서, 나뭇잎 씨 모양이 가지는 디자인적, 상징적 가치로 유사 판단할 수 있다.

(3) 유사 판단

① A회사의 등록상표 X와 B회사의 나뭇잎 씨 모양은 앞면이 드러나는 세 갈래 잎 모양의 단위 구성요소를 동일한 방향으로 연속적으로 배열하여 전체적으로 세갈래 잎이 일련으로 연속적인 원형을 이루고 있다. 일반이 주는 지배적 인상이 유사하다. ② B회사는 A회사와 마찬가지로 테두리는 등록상표 X와 같은 모양을 사용하였다.

③ 따라서, ^{등록상표 X와 나뭇잎 씨 모양}상표는 일반이 주는 지배적 인상이 유사하여 출처 오인·혼동 염려 있는 유사 상표이다.

[문제 3]

I. 설문 (1) **4.5**

1. 상표 유사 판단 일반 원칙 제191

상표의 이와·형상·관조 등 전체적·부분적·이질적으로 일치하여 소비자에게 출처 혼동을 불러 일으키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2. 압제 상표 유사 판단 기준 제191

입계적 도형 상표의 이권이 주 지배적 인상이 유사하여 동일·유사 상표에 사용되는 경우 소비자 거래자에게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이 발생할 염려가 있다면 이는 유사 상표라고 보아야 한다.

3. 이질적 관조의 경우 제191

도형상표의 경우, 특히 '대다 강릉 달기 하여' 향상을 글 대하는 사람들이 출처 혼동 염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4. 유사 여부

A회사의 포장과 B회사의 포장의 외관을 대비하여 보면 A회사의 포장을 전체적으로 동일한 형식 또는 B회사의 포장은 각진 육각형 도형이고, A회사의 포장의 부풀어 오른 사각형으로 보이는 부분을 가지고 있으나 B회사의 포장을 전체적으로 각진 옆면을 가지게 하는 점 등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B회사의 포장은 별도의 문자 모양의 특징이 있다.

② 따라서, 원인이 주는 지배적 인상이 유사하지 않아
양 상표는 출처 혼동 여려 없는 바지사 상표이다.

③ 또한, A회사 포장에 식별력이 많은 출처 혼동
여려가 없다.

4. A회사 주장 부분

- 양 상표는 유사한 바, A회사 주장을 부당하다.

II. 설문(2) 4.5

1. 압제 상표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여부

위191도 압제적 행상이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을 인정하는
바, Blue Diamond ~문+. 사건. 마주로 3형 증의 그릇은
별도로 광고하여 사용한 바, A회사 포장에서 압제적
행상이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다.

2. 상표 유사 주장 거부

(1) 등록 후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시 위191

① 상표 유사 판단에서 식별력의 유무와 강약을 중점하
고려되는데, 상표 식별력을 유동적으로 유사판단 시에
같은 시점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② 상표이권
중 식별력이 많은 부분이 상표 유사 판단 시에 식별력
을 취득하여 특정인의 출처에서 식별된다면 이른
가치로 유사 판단하여야 한다.

(2) 사건

A회사의 압제적 행상이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한

경우에 이를 가차로 유사 판단하면, 양 상품은 출처를
연려 있는 유사 상품이다. 이는 ~~제한적~~.

3. 효력 제한 주장 거부

(1) 법 제 90조 2항 2의 상계

상표가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다면 등록상표에
대한 특정·배타적인 권리를 취득한 것이고, 이 제 90조
항 2에 해당하는 상품에 대하여는 상품권 효력이
미친다. 이는 등록 후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한 도
크 미친가지이다.

(2) 권리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한 경우, 특정·배타적인 권리 발생에
관한 것을 통해 그 상품에 대해서는 법 제 90조 1항 2
의 표상에도 상품권 효력이 제한되지 않는다는 취지에
따라야 한다.

(3) 사인

표의사의 표상이 법 제 90조 1항 2에 해당하더라도,
표의사 상품권의 효력은 거기에서 미치지 못하며, 효력제한
행위를 할 수 없다.

4. 권리남용 행위 거부

특허부정행위 법 제 33조 1항 2에 위자가 있음을 주장할
수 있으나, 재확인하면 문제가 없으므로, 설익이 크지는
않다.

II. 선행(3) ~~11~~ 6.5

1. 甲출원 등록 여부

(1) 특정 제 24조 1항 7호 거절유지 조부 - 작금

① 선출원 등록된 A회사 표상과 유사한 상품 즉 유사 상품인 '치료용 약제'에 출원한 바 본원에 해당한다.

(2) 특정 제 24조 1항 9호, 11호 내지 12호 - 작금

① A회사 표상은 주지. 지명된 상표이고, ② A회사 표상과 甲의 상표는 유사하고, ③ 상품을 '치료용 약제'로 유사한 바, ④ 9호에 해당하고 ⑤ 출제 출원 연도 있어 11호 전건에 해당하고, ⑥ 출제 출원 연도 연한 수급자 기한 연도 있어 12호 후단에 해당하며, ⑦ 부정확 목적 있으므로 12호에 해당한다.

(3) 특정 제 24조 1항 20호 - 작금

① 甲은 A회사와 특정 판매계약을 맺었던 자로 ② A회사가 사용 중임을 알면서 ③ 동일·유사 상품을 유사 상품에 출원한 바, 본원에 해당한다.

(4) 특정 제 24조 1항 21호 - 작금

① 甲은 V자. 일복에 등록된 A회사 표상을 ② 동일 불지 아니한 채 ③ 동일·유사 상품을 동일·유사 상품에 출원한 바 본원에 해당한다.

(5) 소결

위와 같은 거절유지 조부. 등록 불가하다.

2. 특허권에 대한 조치

(1) 무효심판 청구 - 특허법 제 117조

위와 같은 무효사유를 들어, 이해관계인 A회사는 무효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2) 부정사용 취소심판 청구 - 특허법 제 119조/항 1

甲이 등록상표, 상표 유사범위에서 사용하여 수급자 출제 효력을 일으키는 경우, 등록상표권 주장은 알고 있어 고의가 인정되는 바, 부정사용 취소심판 청구할 수 있다.

(3) 불사용 취소심판 청구 - 특허법 제 119조/항 2

3년 미만하여 불가능하다.

(4) 상표권 포기, 양도 행위

위와 같은 무효사유, 취소사유를 이유로 포기, 양도 행위를 한다.

3. 사용에 대한 조치

① 상표법상 침해금지청구 유사 범위 내에서 사용하였으므로 침해가 성립한다. (특허법 제 107조)

② 상표법상 침해금지청구, 동해배상청구 (특허법 제 107조, 111조)
침해권 고지 (특허법 제 226조) 고려할 수 있다.

③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표} 침해금지청구, 신용회복청구, 응답
고려할 수 있다. (경쟁법 제 43조, 50조)

[문제 4]

I. 설문 (1) ③

1. A, B의 법률관계

(1) 상표권 공유

A와 B는 상표 X를 공동출원한 후, 등록받은 바, 상표권을 공유한다.

(2) 민법상 손해배상청구

추출한 바와 같이, C의 사용으로 B가 업무상 피해를 입었다면 B는 A에게 민법상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다.

2. A, C의 법률관계

(1) 통상사용권 설정 무효

상표권이 공유인 경우, 상표권자 ^{모두} 동의를 받아야, 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으므로 (이 법 제 93조 3항), C의 통상사용권 설정 계약을 무효이다.

(2) B의 동의 여부

C는 A에게 ~~B의 사용~~ B가 하여도 통상사용권 설정 계약에 동의한 것은 어쩔 수 없다.

3. B, C의 법률관계

C는 통상사용권자가 아니므로, B C의 등록상표 X 사용도 B에게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

II. 설문 (2) ①

1. D의 법적 지위

공유 상표권자는 공동으로 D와 2년 전 통상사용권 설정계약을 하

했으나, D는 이를 증하지 않았다. 다만 증은 대항요건만
뿐이므로 (소법 제 100조 1항), D는 전용사용권자이다.

2. D, E의 관계

(1) E의 법적 지위 - 통상사용권 설정계약 무효

① 전용사용권자 D는 E에게 통상사용권을 설정하였으나

② 전용사용권자가 통상사용권 설정 시에는 상대방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바 (소법 제 95조 6항), ③ 그러한 사실이
없어 E의 통상사용권설정계약은 무효이다.

(2) 상표권자 A, B의 동의 여부

이에 대해 E는 D에게 상표권자 A, B가 하여금 통상
사용권 설정 계약에 동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3. E, F의 관계

(1) 통상사용권 이전 계약 무효

① E는 통상사용권을 F에게 이전한 바, ② 통상사용권
이전 시에는 상대방권자나 전용사용권자의 동의를 요하
므로 (소법 제 97조 3항), ③ A, B와 D로부터 동의
받은 바 없으므로 통상사용권 이전계약은 무효이다.

(2) A, B와 D에게서 동의 여부

F는 통상사용권 설정 계약을 맺은 E에게 A, B와
D가 하여금 통상사용권 소유 이전계약에 동의하게
라고 요구할 수 있다.

4. D와 E쪽은 F와의 관계

(1) 법률관계

모두 적법한 증인을 받는다면, 전용사용권자와 통상사용권자의 관계에 해당한다.

(2) D 실시제한 여부 - 2주

E쪽은 F는 통상적 통상사용권자인 분이므로 D의 실시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3) D, E, F 중 ^{1인} 일부 사용

① D, E, F 중 알 1인이 부정사용하려거든 법 제 119조/항 2항 쪽은 법 제 120조 최고법원이 인용될 수 있다.

② D, E, F 중 1인이 사용으로 불사용 최고법원에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신하법원

※ 추가작성의 경우 []에 "계속"이라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